

# 5·18 군법회의의 유죄 45명, 38년만에 명예 되찾나

### 특별법 제정 따른 재심 길 열렸는데 모른 채 세월 흘러 광주지검, 당사자·유족 일일이 설득해 직권 재심 청구 홍남순 변호사 등 포함...무죄 판결 받으면 국가 보상금

5·18민중항쟁에 참여했다가 38년간 전과자로 살아온 이들이 범죄자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광주지방법검찰청이 5·18과 관련한 형사 재판에서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구제절차를 밟지 않은 45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5·18과 관련해 재심을 청구한 첫 사례로, 수개월동안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당사자 또는 유족을 직접 만나 일일이 설명·설득하는 등 어려운 조사과정을

거친 결과물이다.

광주지검(김석담 부장검사)은 “대검찰청 공안부로부터 5·18 관련 사건으로 재심청구를 의뢰받은 86건 112명 중 광주지검 관할인 고 홍남순 변호사 등 45명(41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지검은 또 재심청구 대상이지만, 광주 관할이 아닌 53명(39건)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검찰로 사건을 보내 재심청구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이번 재심청구 대상은 5·18 당시 계엄

사령부 산하 '전투교육사령부계엄보통군법회의'(군법회의)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재심 사유가 인정된 사건들이다.

이들은 1995년 5·18 특별법 제정 이후 재심 청구할 길이 열렸는데도 이를 알지 못해 무죄 판결을 받지 못했으며, 검찰이 최근 이들을 직접 찾아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청구를 위한 조사과정에서 대부분은 감사의 뜻을 나타냈으나, 가족(부모)이 5·18 당시 희생된 사실조차 모르거나 5·18에 대해 기억조차 하기 싫다며 재심청구를 거부하는 유족도 있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번 재심청구 대상에는 2006년 타계한 홍남순 변호사도 포함됐으며, 유족들은

“생전에 본인(홍 변호사)이 얘기를 하지 않아 재심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화 운동의 대부”로 꼽히는 홍 변호사는 5·18 당시 16명의 수습위원과 함께 5·18 시민 희생을 막기 위한 소위 ‘죽음의 행진’에 나섰다. 내란 중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년 7개월간 복역한 뒤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홍 변호사 등 당시 5·18과 관련한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모두 402명(160건)이다. 이 가운데 284명은 5·18에 대해 기억조차 하기 싫다며 재심청구를 거부하는 유족도 있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들이 이번 검찰의 직권 재심청구로 무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이나 상속인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5·18 보상법 및 5·18 유공자법에 의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징역형을 산 이들은 하루 평균 20만~30만원씩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돼 많게는 억대의 보상금을 받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다만 보상금지원신청기간(2015년 1월 1~6월 30일)이 경과한 탓에 보상금을 받기 위해선 5·18보상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5·18 당시 헌정 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거나 반대한 행위로 처벌받은 분들을 찾아 명예와 권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부동산 이중매매는 배임” 대법 전원합의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부동산을 둘러싼 권리분쟁에서 땅을 판 사람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도 소유권이전 등기를 안 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판 경우에는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다른 사람에게 판 땅에 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저당권을 설정해준 혐의(배임) 등으로 기소된 권모(68)씨의 상고심에서 배임 혐의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 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 지급 단계에 이르러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던 매수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가 발생하고, 그때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권씨는 2014년 8월 상가점포를 황모씨 등에게 13억 8000만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2억원, 중도금 8억원을 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15억원에 이중 매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배임 외에도 위조한 재무제표확인서를 제출해 은행에서 52억원을 대출받은 혐의(사기) 등도 받았다.

1심은 사기와 배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권씨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기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 학생들 주먹밥 먹으며 나눔정신 공감한다

### 점심 급식...‘5·18 추념 쿠키’도 골든벨·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

주먹밥 나누어 먹기, 5·18 골든벨퀴즈, 5·18음악회, 5·18사진전...

광주 학생들이 5·18민주화운동 38주기를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1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초중고교는 ‘5월 광주, 역사교육’의 하나로 18일 점심시간 급식으로 주먹밥을 먹는다.

주먹밥 급식 행사에 참여하는 학교는 전체 317개 중 212개교다. 이는 지난해보다 89개 학교가 늘어난 것이다. 초등학교는 154개교 중 132개교가 행사에 참여한다. 각화초·매곡초 등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자율활동 시간을 이용해 주먹밥 만들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장덕고는17일



무진중 학생들이 만든 ‘5·18 추념 쿠키’

지역사회담구 동아리 주관으로 5·18 골든벨 퀴즈대회를 열어 실력을 겨룬다. 5·18 관련 영상을 보면서 80년 5월 계엄군의 부당한 진압과 군부독재에 저항했던 시민들의 정신도 되새긴다.

무진중 제과동아리 학생들은 ‘5·18 추념 쿠키’를 만든다. 지난 2015년 무진중학교 교육복지사였던 최은숙씨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학생들은 쿠키를 만들어 6개씩 비닐에 담았다. 그런 다음 ‘REMEMBER 518’이라고 적힌 스티커를 붙였고 이렇게 만든 5·18쿠키를 전교생들과 나눠먹었다.

운상원열사의 모교인 살레시오고에서는 5·18기념 음악회를 연다.

살레시오고는 18일 오후 7시30분 북구 일곡동 제2근린공원에서 학생·학부모·지역주민·교사들이 함께하는 5·18 기념, 작은 음악회를 진행한다.

살레시오고등학교의 ‘5·18 작은 음악회’는 5·18 광주정신을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배우는 열린 교육의 장으로, 2012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광주제석초는 5·18기념재단에서 받은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진전을 진행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현화하는 유가족 제38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5·18 유가족들이 추모식을 열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현화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 전북서도 5·18 추모...임균수·이세종 열사 추모식

5·18 광주민주화운동 38주년을 맞아 전북에서도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열사 추모식이 열린다.

제38주년 5·18 민중 항쟁기념 전북행사 위원회에 따르면 원광대학교는 18일 오후 4시 임균수 열사 추모식이 진행된다.

원광대 한의대 본과에 재학 중이던 임균수 열사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 앞 시위에 나섰다. 계엄군 발포로 사망했다.

원광대는 1987년 임 열사를 기리는 추모비를 세워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열사의 넋을 기리고 있다.

전북대학교는 지난 17일 이세종 열사 추모식을 거행했다. 이세종 열사는 1980년 5월 17일 전북대학교 제1 학생회관에서 계엄군을 상대로 농성하다 이튿날 새벽 1시

에 땅바닥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사인을 ‘단순 추락사’로 발표했으나 이 열사 시신 여러 군데서 피멍이 발견돼 계엄군에 의한 집단 폭행 의혹이 제기됐다.

이 열사는 이후 민주화운동 첫 희생자로 인정돼 국립 5·18 민주묘지에 안장됐다. 행사위는 “이 열사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5·18 민주화운동의 첫 희생자”라며 “이제는 빛바랜 사진으로만 남았지만, 추모식을 통해 그날의 외침을 간직한 이 열사의 흔적을 따라가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사위는 두 열사 추모식을 마치고 18일 오후 6시부터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사진전과 가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음=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 5·18재단 ‘광주아시아포럼’ 새로운 보조현장 오늘 선포

5·18기념재단이 개최하는 ‘2018 광주아시아포럼’이 ‘지금도 실천할 때’를 주제로 오는 19일까지 각종 행사를 진행한다.

올해 포럼에서는 ‘아시아 인권현장’ 채택 20주년을 맞아 인권·평화·민주 등 5·18정신을 담은 보조현장을 새롭게 마련한다.

보조현장은 정의권 선언문, 평화권 선언문, 문화권·정체성 선언문 등 3가지 주제로 구성되며, 아시아 각국의 국가폭력,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감축, 난민 평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포럼 참가자들은 보조현장 선언문 내용을 다듬은 뒤 18일 선포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사고 외제차 서류 조작 역대 쟁거

○...교통사고로 파손된 외제차를 정상 차량인 것처럼 검사량인 것처럼 속여 역대 할부대출금을 갚던 일당이 속고량.

○...17일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2016년 10월부터 4개월간 사고로 반파 또는 완파된 중형 외제승용차를 할부에 사들인 뒤 서류를 조작해 할부금융사에서 4차례에 걸쳐 1억여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이모(35)씨 등 7명을 범주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

○...이씨 등은 실제 대당 300만~500만원에 차를 구매할 뒤 중고 매매상사에서 수천만원에 산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대출을 받아냈는데, 경찰 관계자는 “이씨 등이 일부 제2금융권에서 3000만원 미만 대출 심사 시 실물을 확인하지 않고 서류로만 대출심사를 하는 점을 악용했다”면서 “심지에 대출에 이용한 차량을 대포 차량으로 유통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9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 ★ [건물] 광주 서구 능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신기리  
토지:8,630㎡(2610,56평) 건물:6299,19㎡(1905,50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100억  
화순전대병원인근에 위치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분양**

제주 조천읍 스위스마을(타운하우스)  
총 66세대 중 3단지4단지 31세대 분양 중  
(1단지 2단지 분양완료)  
타입 : 36평형, 45평형 2018.7월 입주예정  
신개념 수익형 타운하우스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